일 주 문



청주무예마스터십 MOU

정도 충북불교총연합회장 스님은 8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청주 선프라자서 충북도와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MOU를 맺는다.



선운사 칠석기도

경우 고창 선운사 주지 스님은 8월 9일 경내 지장보궁서 '가족의 행운을 기원하는 칠석기도'를 봉행했다.



고운사 종경록 특강

호성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은 8월 22~26일 오후 2시 화엄문화템플관서 '각성 스님 종경록 특강'을 개최한다.



공불련 첫 정기법회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8월 1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조계사 관음전서 첫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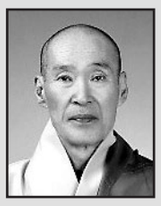
마음모아 함께 바자회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은 9월 1~2일 오전 10시~오후 6시 서울 견지동 나무갤러리 및 개발원 주차장서 마음모아 함께 바자회를 연다.

화촉 이근혁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임은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회기역 2번 출구) 웨딩 헤너스 7층 씨엘로홀에서 신부 김윤주 씨와 화촉을 밝힌다.

월정사 선덕 홍원월면 스님 원적

법랍 54세, 세납 75세… 산중장 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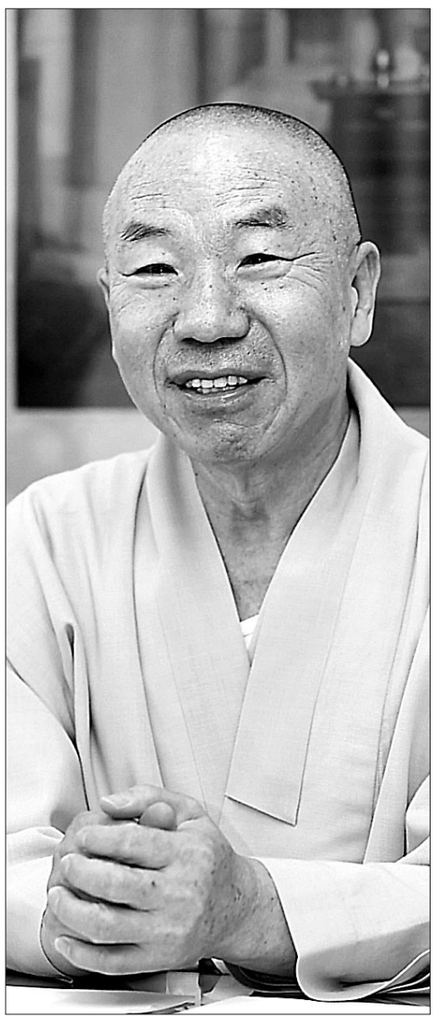


조계종 제4교구본사 평창 월정사 선덕 홍원(弘願)당 월면(月面) 스님〈사진〉이 8월 8일 오전9시 원적에 들었다. 법랍 54세, 세납 75세. 월정사(주지 정념)는 8월 8~10일 오대산 산중장을 엄수하고, 10일 오전 10시 영결식을 봉행했다.

1942년 경남 양산서 출생한 월면 스님은 1962년 월정사서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9년 해인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윤호섭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09호 4면 '법륜비구니장학금' 기사에서 윤서 스님을 **'윤성 스님'**으로, 감사 운성 스님을 **'운산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청년 희망, 불교가 심어주자"

제1회 청년희망캠프 여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못 먹고 못 사는 것 보다 희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질보다 자신의 삶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계가 이런 시대에 맞는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합천 해인사가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 사상 처음으로 '가야산 해인사 청년희망캠프'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희망캠프를 연 것은 이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사진〉은 8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상대평가 하는 이 시대, 청년들이 자기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색을 버리고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던 차에 이번 캠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인사는 참가하는 청년들을 위해 18일 오전 11시 김천구미역서 해인사로 버스를 운행한다. 입재식과 함께 해인사 학감 보일 스님과의 가야산 순례가 진행된다. 또 국민멘토 혜민 스님을 비롯해 정홍규 신부, 유수상 목사 등 이웃종교인들도 참여,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취업을 위한 전문강좌도 열려 8명의 취업 전문가들이 조별 리딩을 맡아 매력적인 이력서 쓰기, 실제 면접 시뮬레이션 등 1:1 코치를 한다.

혜민 스님, 정홍규 신부 등 멘토 나서

무한 경쟁에 지친 청년들 희망 전달

취업강좌 · 문화행사 등도 펼쳐져

문화행사로는 김범준 MBN사회자의 전문진행에 맞춰 해인사 축구장서 인디밴드 '준수-바름을 가르고'와 퓨전국악그룹 '어쿠스틱 미미'가 출연하는 공연프로그램, 산사명상 및 암자순례, 차담, 마애불 산행 등이 진행된다.

향적 스님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무료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청년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삶의 희망과 목표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진 해인사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지친 심신을 위해 안정과 쉼의 시간을 갖고, 취업전문가와 멘토들의 조언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적 스님은 이번 활동에 이어 향후 팔만대장경을 활용한 국민 밀착형 포교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향적 스님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판 하나당 한 명을 결연해 직접 보살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보를 스스로 보존한다는 책임감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년 8만 명이 사찰을 찾게 돼 불교포교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향적 스님은 "불교는 현재 출가자가 감소하고 있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기존 포교방법으로는 유교와 같이 유물, 사상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번 캠프를 계기로 사회 속에서 여러 계층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강화지역 어르신, 늘 건강하세요!"

강화불교사암연, 3년째 어르신 효도잔치 열어

강화불교사암연합회(회장 승석, 전등사 주지)는 8월 11일 적석사에서 강화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개최했다.〈사진〉 효도잔치는 백중을 맞아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과 효의 의미를 살리는 취지에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효도잔치는 행사를 주관한 적석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행사를 주관한 적석사 주지 선암 스님은 "백중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게 돼 영광"이라며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감사드리고,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화불교사암연합회장 승석 스님은 "요즘 심각한 무더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풍경도 좋다. 그리고 그보다 행사를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불자 가수 김흥국 씨를 비롯한 대한가수협회 소속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다양한 노래공연을 선보였다. 이에 어르신들은 흥겹게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집은 무척 더워서 답답했는데 이곳에 오니 더운 줄 모르겠다"며 "음식도 맛있고 공연도 재밌다. 매년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르신들은 행사가 끝난 뒤 사암연합회가 준비한 우산과 수건 등의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행사에는 각 사찰 주지스님들과 이상복 강화군수,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원, 배정만 강화불교신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문화유산, 우리가 지킨다!"

전국문화유산 캠페인 서포터즈, 8월 11일 출정식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은 8월 11일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강당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나누기 위한 '2016 I LOVE KOREA 전국문화유산 캠페인(이하 전국문화유산 캠페인)' 출정식을 개최했다.〈사진〉

전국문화유산 캠페인은 지난해 진선연고서 진행된 문화재 환수 캠페인에 이은 진각복지재단이 주최하는 2번째 캠페인이다. 전국 10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이 8월 11~13일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해를 전달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 국악밴드 AVIO · 더킹 · 써니플레이 · 코마 등 공연팀의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했다.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 진행되는 '시민 참여형 퀴즈 이벤트'서 정답을 맞춘 시민들에게 음료 기프트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상품도 마련됐다.

첫날인 11일엔 대구 백화점 앞 및 경주 황룡사지, 12일엔 부산역 및 광안리 만남의 광장, 13일엔 서울 마로니에 공원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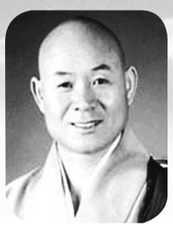
서포터즈단은 앞서 7월 9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이번 캠페인서 진행되는 퍼포먼스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했다. 이에 대해 진각복지재단 측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을 갖게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6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8월 22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